

광양시, 폭우 대비부터 물놀이터까지 ‘여름 준비 완료’

진월 중도배수펌프장, 마동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지 등 4개소 방문

광양시는 지난 14일 5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과 시민 휴식 공간 조성 사업 현장 등 주요 현장 4곳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날 ▲진월 중도배수펌프장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전시시설 설치 현장 ▲마동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장 먼저 찾은 진월면 중도배수펌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방재시설로, 2010년 준공되었으며 20년 강우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총 4기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당 최대 660㎥의 배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는 평상시에도 시설 시험 가동과 수시 점검을 통해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록 우기 대비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 시장은 배수펌프장 작동 여부와 주요 시설물 등을 살핀 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진상면 탄치 재해위험지구에는 2021년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시는 2022년 1월부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마무리 단계로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정 시장은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확인한 후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진상면에 위치한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다. 2008년 개관한 이 기념관은 전남 동부권에서 최초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역사적 장소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대강당, 세미나실, 숙소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해당 기념관의 선교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광양의 기독교 역사를 시청각 자료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전시시설 설치사업을 착수, 올해 1월 완료했다.

향후 종교시설의 성격을 넘어, 시민과 관람객들이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마동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현장을 찾아 연립별 어린이풀, 물놀이 구조물, 휴게 및 편의시설 등 설치 예정 시설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이용 연령에 맞게 어린이풀 수심을 조정하고, 아이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일상 속 시원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름철 개장 시기에 맞춰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군, 벼 모판관주처리 연사회 개최

노동력·비용 절감 효과 탁월한 처리 기술 교육 및 시연

보성군 15일 읍면 소재 육묘장에서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벼 모판관주처리 현장 연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사회는 벼 재배 농업인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판관주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시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 활용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판관주처리’는 이앙 1~2일 전, 살충제, 살균제, 작물 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후 물뿌리개를 이용해 육묘 상자당 약 400㎖를 관주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본답 방제 1회

를 생략할 수 있어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약제 살포 시간은 관행 대비 95% 이상 단축, 농약 및 처리 비용은 약 13%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벼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관주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70ha 면적에 대해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판관주처리는 작업이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높아 농가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농가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운기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무인판매기, 웨이팅보드 등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총 41

순천시, 소상공인에 스마트기기 최대 100만 원 지원

키오스크, 무인판매기 등 디지털 기기 설치비 80% 지원

개소 내외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선정된 경우나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키오스크 설치 시에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에 따라 점포 면적에 맞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기기 설치 후에는 2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대전머리길 108, 2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kskchoi@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제품 견적서 등이며, 선정 후 60일 이내에 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www.suncheon.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성군이 하절기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6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주민(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면역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4세 이하, 항암 치료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르면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감염 사

장성군 “하절기 전염병 유행 미리 대비하세요”

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성군은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에 4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5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최소 접종 간격 90일이 지난 대상자는 1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홍역과 일본뇌염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12~15개월, 4~6세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으로 2회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해외 출국을 앞둔 6~11개월 영아도 접종이 권고된다. 성인은 최소 출국 2주 전에 유료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장성군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2012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이다. 접종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 거주자,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는 유료 접종이 권고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분(세율 0.25%) 및 토지분(세율 0.2%~0.4%)에 대해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

화순군, 재산세 변동 신고로 절세하세요

우, 주택분 재산세율(0.1%~0.4%)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신고 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커

질 수 있으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희망하

는 경우 6월 15일까지 입증 서류를 첨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획감사실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광군,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거리 캠페인

함께 준비하는 영광, 함께 키우는 미래

영광군(장세일 군수)은 14일 영광우체국 사거리 일원에서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영광군청, 보건소, 교육지원청, 관내 의료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의미를 모았다.

참여자들은 『함께 준비하는 영광,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 행진을 펼치며, 임신·출산 지원정책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군민들에게 출산 진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영광군은 결혼·임신·출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44개(결혼지원3개, 임신지원20개, 출산지원21

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출산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결혼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임신부 교통카드 △출생기본수당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임신 사전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있다.

영광군(장세일 군수)은 “함께 준비하는 영광,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과 함께하는 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